

위염균 양성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에서 구제요법 효능에 대한 후향적 연구

해운대 백병원 내과

신윤지, 임성남

목적: 위염균 감염은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의 병태생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염균의 제균치료는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의 일차치료이다. 그러나 위염균 제균 치료 후에도 위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이 잔존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치료를 2차 치료로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간 추적관찰결과는 많지 않다. 이에 후향적으로 위염균 제균 치료 후 2차 치료로써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시행한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.

대상및 방법: 대상환자군은 2000년6월부터 2017년6월까지 위염균 양성으로 진단된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 환자중 위염균에 대한 1차 표준제균요법 후 불응 또는 재발 환자는 모두 29명이었다. 위염균 양성 여부는 위내시경 조직에서 위염균검사 또는 요소나일숨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였다. 대상환자군은 모두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로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으로 진단하였고, 컴퓨터단층촬영과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병기를 확인하였다. 위염균 양성을 확인 후 표준요법으로 위염균 제균치료를 시행하였고 제균치료의 효과는 추적 위내시경검사로 확인하였다.

결과: 추적관찰기간 동안 16명의 환자가 위염균 표준제균치료 후 잔존암이 확인되었고, 이 중 9명은 미세잔존암이었다. 일차 위염균 제균치료 후 4명에서 재발이 확인되었고, 29명의 환자중 고등급 B-세포림프종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. 위염균 제균치료 후 잔존암이 확인된 환자와 1차 제균치료 후 재발된 환자 29명에 대한 2차 치료는 각각 방사선치료(20명)와 항암화학요법(5명),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(1명)이었다.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20명의 환자군의 방사선 조사량의 중앙값은 3060 cGy (범위, 1620 - 5000 cGy)이었고 모두 완전관해를 획득하였다.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시행 받은 6명의 환자 중 5명은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, 잔존미세암이 지속된 1명도 추가 방사선치료 후 완전관해를 획득하였다. 10년 무진행생존률과 전체생존률은 각각 100%와 83%이었다.

결론: 위염균 양성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에서 1차 위염균 제균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치료로써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치료 모두 장기간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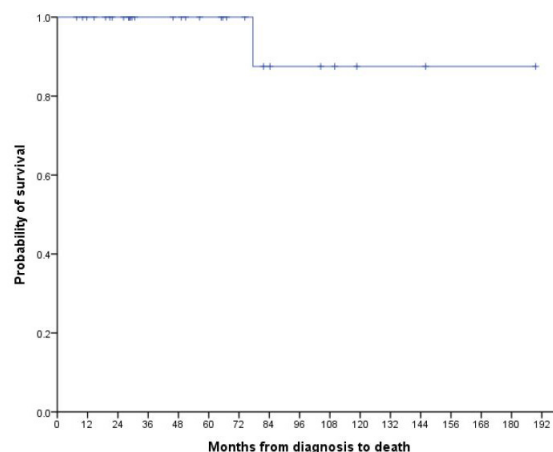


Figure. 10-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received salvage treatment with radiotherapy and/or chemotherapy

#. Response of RTx

Response	N	%
CR	21	100
PR	0	
SD	0	
PD	0	

#. Response of CTx

Response	N	%
CR	5	83.3
PR	0	0
SD	1	16.7
PD	0	0